

한전, 호남전력 수도권 전송 2GW급 4개 루트로 효율화

4GW급 2개 루트서 변경... 2031·2036·2038년 단계별 준공 2038년까지 적용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확정...총 73조 투입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변전소 신설... '200조 부채' 자금조달 과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호남-수도권 전력 계통을 재구성하는 등 초고압 직류 송전(HVDC)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새로운 장기 계획은 호남-수도권 전력 계통을 기존 대비 2GW(기가와트) 단위로 세분화하고 단계적으로 준공하는 게 핵심이다.

한전은 27일 "제312차 전기위원회에서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상된 전력 수요와 발전 설비 전망치를 기반으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되는 송·변전 설비 구축에 대한 세부 계획이다.

한전은 이 같은 송·변전 설비 계획 추진을 위해 오는 2038년까지 72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제10차 계획 당시 전망했던 투자액 대비 16조 3000억원(28.8%) 증가한 규모다. 한전은 송·변전 설비 관련 투자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자체별 상승과 지중송전선로 증가 영향이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 같은 송·변전 설비 계획 추진을 위해 오는 2038년까지 72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제10차 계획 당시 전망했던 투자액 대비 16조 3000억원(28.8%) 증가한 규모다. 한전은 송·변전 설비 관련 투자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자체별 상승과 지중송전선로 증가 영향이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 같은 송·변전 설비 계획 추진을 위해 오는 2038년까지 72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제10차 계획 당시 전망했던 투자액 대비 16조 3000억원(28.8%) 증가한 규모다. 한전은 송·변전 설비 관련 투자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자체별 상승과 지중송전선로 증가 영향이 미쳤다"고 설명했다.

4월 주담대 금리 0.19%p ↓, 3.98%...7개월만에 3%대로

"은행채 등 지표금리 하락 때문" 예대금리차 8개월만에 축소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에도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모두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4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6%로 전월(4.51%)보다 0.15%포인트(p) 낮아졌다. 5개월 연속 내림세다.

월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대기업(4.04%)과 중소기업(4.24%) 금리 하락 폭은 각 0.28%p, 0.07%p로 집계됐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도 한 달 새 4.36%에서 4.19%로 0.17%p 내렸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48%p로 전월(1.52%p)보다 0.04%p 줄었다. 대출 금리 하락 폭이 예금 금리보다 더 커 8개월 만에 축소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고려옷칠 팝업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고려옷칠' 팝업 매장에 서 직원이 옷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 목기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9일까지 고려옷칠 팝업 매장을 진행한다. 팝업에서는 옷칠 머그컵, 옷기루 수저 등 주방 용품들과 나전칠기 등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은행, 녹색기술·환경기업 금융지원 늘린다

기술보증기금과 활성화 업무협약

광주은행은 "지난 26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녹색여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녹색기술 및 환경산업을 실현하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 박주선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지역 소재 친환경 경제활동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중고폰 이제 믿고 거래하세요"

판매자 인증제·거래확인서비스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걱정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휴대전화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 사실확인 서비스 제도'를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 가격 정보 제공 등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인증 요건으로 구성했다. 중고 휴대전화 매입 사업자는 공장 초기화 또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단말기 단계별 등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게시해야 하고 매입 가격 정보도 안내해야 한다.

직장 적응 교육 참여자

광주경총 우수사례 공모전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상반기 직장 적응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전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상반기(1~6월) 교육참여기업 교육 담당자와 교육 참여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광주경총 직장적응팀을 통해 6월 1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5월 소비심리 4년7개월 만에 최대 폭 개선

소비자심리지수 8.0p 오른 101.8

미국 상하관세 유예 조치, 새 정부 경제정책 대강 등에 힘입어 소비자 심리가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4월(93.8)보다 8.0포인트(p) 올랐다.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4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상승했다.

삼성전자, 영국 '올해의 홈엔터테인먼트 브랜드' 선정

삼성전자가 영국 소비자연맹 '위치'(Which)가 주관하는 '위치 어워드'에서 '올해의 홈엔터테인먼트 브랜드'로 선정됐다. 위치 어워드는 홈 엔터테인먼트, 전자, 헬스, 보험 등 13개의 카테고리에서 브랜드의 기술력, 디자인, 접근성 등을 평가해 최고의 기업에 주는 상이다.

결과라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위치는 앞서 2024년에도 TV·오디오 부문에서 14개의 삼성전자 제품을 '베스트 바이'(Best Buy) 모델로 선정하고,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SGI서울보증 전세대출 상품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강화

SGI서울보증은 "6월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차주)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유주택자이면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연간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코스피 | 2637.22 (-7.181) |
| ↑ 코스닥 | 727.11 (+1.84) |
| ↓ 금리(국고채 39년) | 2.340 (-0.008) |
| ↑ 환율(USD) (오후 4시 49분 기준) | 1374.10 (+9.70) |